

배포일시	2019. 6. 13.(목) 10:00 (총 2매)		보도시점	2019. 6. 13.(목) 11:00	
담당부서	혁신행정담당관 국립기상과학원	담당자	과장 김희수 과장 김승범 연구관 이혜숙	전화번호	02-2181-0322 064-780-6601 064-780-6606

**기상청, 인공지능 기상예보 보좌관
 '알파웨더' 개발한다!**

□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7월부터 국립기상과학원에 벤처형 조직을 신설하여 기상 빅데이터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인공지능(AI) 기상예보 보좌관 '알파웨더'*를 개발한다.

○ 이는 '인공지능 기반의 예보기술' 과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 혁신행정 아이디어로 최종 선정되면서 개발 발판이 마련되었다.

* **알파웨더(Alpha weather):**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예보관의 예보생산과정을 학습한 후 시간당 100GB(약 15만 개)의 데이터를 활용·분석하여 예보관이 신속·정확한 예보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

□ '알파웨더'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될 예정이다.



○ 1 단계(2019~2021년)에서는 알파웨더가 예보관의 예보생산과정을 학습하여 예보관이 기상특보, 기상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.

- 2단계(2022~2024년)에서는 지역별 다양하고 특화된 기상 예보가 가능한 ‘우리 동네 스마트 파트너(Smart Partner) 알파웨더’를 개발할 예정이다.
- 더 나아가 3단계(2025~2027년)에서는 국민 개개인을 위한 일상생활 패턴에 맞는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‘나만의 스마트 파트너(Smart Partner) 알파웨더’를 구축하여 개인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.



알파웨더를 통한 기상예보생산 과정

□ 김종석 청장은 “이번 알파웨더의 개발이 기후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날씨 상황에서 보다 나은 예보서비스 제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”라고 밝혔다.